

[특별새벽기도회] 무대 뒤에 선 영웅들

[본문: 여호수아 14:6~15]
강준민 목사 / 2006/ 페이지수: 3

여호수아를 위해 무대 배경이 되어준 갈렙

무대 뒤에 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1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훌륭한 2인자가 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훌륭한 2인자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간 모세를 섬겼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야 여호수아는 무대 앞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무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대 뒤에서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2인자들이 탁월한 1인자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갈렙은 여전히 훌륭한 2인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갈렙은 동료였던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훌륭한 인격과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어려운 일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동료인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여전히 무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갈렙을 보면 훌륭한 2인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훌륭한 2인자의 길을 가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무대 뒤에 선 영웅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함께 정탐을 떠났던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가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 14장 6~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실해지려면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일의 영향력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이고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뢰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과 같이 갈렙도 정탐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없이 신뢰하는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겸손하고 감사하라

셋째,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갈렙을 볼 때마다 그의 겸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9절~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오 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오 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흑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하러 같이 갔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서 1인자가 되었고, 갈렙은 여전히 2인자로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로 겸손하게 나아가 이 산지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질서와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동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아직 받지 못했는지라도 받았다고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불행할 때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영웅을 만든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순종이 무대 위의 영웅을 만듭니다. 갈렙은 모세를 쫓았고, 여호수아를 쫓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민 32:12)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를 초월한 헌신이 무대 위의 영웅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의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인생은 20대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30대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은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를 초월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나이를 초월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신체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는데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나이를 초월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습니다.

셋째,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나이를 초월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가나안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박영주 기자 pyjoo@onnuri.or.kr

* 출처 : 온 누리 신문 (<http://news.onnuri.or.kr>)